

정보화 기반 더 강화한 한해



멀티미디어 시대가 온다고 세상이 들떠있는 듯하다. 회사마다 멀티미디어 사업을 위한 사업부 또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고 사장직속으로 멀티미디어 개발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멀티미디어 시대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 그것은 멀티미디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우화가 있다. 다리를 만지는 장님, 꼬리를 만지는 장님, 몸통을 만지는 장님이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지금 멀티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도 매우 단편적이고 부분적이다.

그러면 멀티미디어 시대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것일까. 아니면 땅에서 철모를 쓰고 튀어오를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기술발전의 연속선상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전할 때 이미 농경사회 속에 산업사회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던 것처럼 멀티미디어 시대도 후기 산업사회의 내부에 이미 싹트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멀티미디어 시대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파미디어의 총아인 텔레비전으로 올 것이다.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TV프로를 보던 단순한 기능의 TV에서, 케이블을 타고오는 TV프로, 위성을 타고오는 TV프로는 물론 전화선을 타고오는 문자정보와 그림정보 등 보고싶은 시간에 선택해 볼 수 있는 TV로 그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을 밟아갈 것이다. 그뿐 아니라 TV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구로, 게임을 즐기는 오락도구로서의 역할도 아주 훌륭

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TV의 컴퓨터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둘째, 개인용 컴퓨터 주변에서 멀티미디어는 탄생할 것이다. 컴퓨터는 본래 인간에게 계산기능을 확대해 주는 기계로 이 세상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이것이 속도와 기억용량 그리고 연산기능이 확대되고 통신과 연결됨으로써 인류사회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컴퓨터 본래의 기능인 계산 기능에서 서류작성 기능, 편지보내는 기능, TV프로를 보는 기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자유자재로 꺼내보는 기능등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날 수 없는 필수품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것은 데스크톱에서 랩톱 노트북으로, 다시 팜톱으로 성능과 기능에 반비례하여 그 크기는 줄어들어 붙어 다니는 요술방망이가 될 것이다.

셋째는 통신기기 주변에서 멀티미디어는 탄생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화기, 카폰, 핸드폰, 페이지 등은 그 기능들을 통합한 아담한 하나의 개인용 통신기기로 나타날 것이다.

넷째, 위와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멀티미디어의 인프라가 개인은 볼 수 없는 땅속과 바닷속 그리고 하늘에 갖추어지게 되고 그 인프라를 타고 수많은 정보가 빛의 속도로 오갈 것이다. 여기에는 슈퍼 컴퓨터와 고속통신이 연결되고 소리와 영상으로 간추려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전세계의 선진국들이 이 방향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국민학교 운동회에 가면 네명이 한조가 되어 다리를 묶고 뛰는 경기가 있다. 남들은 이미 발을 묶고 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다리를 묶어야 할 끈을 찾아 헤매는 것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멀티미디어 시대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 탁상공론을 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이다. 가야할 길은 자명하고 우리에게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초가 있다. 서둘러 행동을 해야 할 때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 장 남 궁 석